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 속으로
 (10) 청소년 인문학 서점 부산 '인디고 서원'

참고서 없는 서점...역사·철학·예술이 숨쉬다



부산의 유명한 학원가인 수영구 남천동 한복판에 자리잡은 '인디고 서원'은 참고서를 팔지 않는다. 대신 인디고 서원 서가엔 문학, 사회, 역사, 철학, 예술, 교육, 생태, 환경 등 6가지로 분류된 단행본들이 가득하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을 표방하는 인디고 서원은 서점 그 이상의 공간이다. '인디고 아이들'은 감명깊게 읽은 책의 저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도 펴낸다. 또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꿈꾸지 않는 자는 청년이 아니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은 책을 통해 꿈을 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간다. 더불어 바쁜 세상살이에 뒤돌아볼 겨를 없던 어른들에게도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진중권·최재천 등 저자 초청 토론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인디고 서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매달 한차례씩 아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저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주제와 변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벌써 32번째 행사다.

이날 인디고 아이들과 만남을 가진 '어른'은 최근 '공부 도둑'이라는 책을 펴낸 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자로부터 '젊은이의 선철한 상담가'로 소개 받은 장 교수는 "짧고 활발한 여러분을 만난 게 기쁘고 축복이다"며 "삶과 공부는 같다"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노년의 과학자가 멀리 부산까지 나들이를 한 건 오직 인디고 아이들 때문이었다. 장 씨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진중권·장영희·최재천·한홍구·박원순·조국·성석제·강수돌·김상봉 등 한국의 내로라하는 인문학자들이 '주제와 변주'에 흔쾌히 참여했던 건 자신의 책을 읽은 청소년들이 보낸 '진심 어린'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와 변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원으로 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한다. 별다른 것은 없고, 책을 읽고 저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감



지난 6일 인디고 서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주제와 변주'에 참석한 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책 '공부도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 깊었던 구절 등을 적어 보내면 된다. '책을 꼼꼼히 읽는 것'이 입장권인 셈이다.

'주제와 변주'가 진행되기 몇시간 전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정세철씨)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열렸다. '정세철씨'는 환경, 역사 등 시사적인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교육방송의 '지식채널-2'를 함께 보고 나서 의견을 나누고 조별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모기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담은 '완전한 박멸' 등 4편의 영상을 보고 참가자들과 조별 토론을 하던 김동형(동수영중 2년)군은 "영상으로 내용을 보니 이해도 쉽고 학교와 달리 이곳에서는 내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철씨' 참가자는 모두 40여명. 그중 인디고 선배들이 각 조마다 한명씩 배치돼 토론의 살마리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줬다.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6년 인디고와 인연을 맺었던 이희선(부산대 1년)양은 "인디고를 통해 책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디고 서원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우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착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입시·논술을 위한 책읽기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열두 달 작은 강의'는 서원 대표 허아람 씨가 직접 진행한다. 또 매일 두 차례씩 어른들을 위한 '수요 독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 프로그램도...8월엔 북페어

'인디고 워크'는 서원이 문을 연 8월 28일 즈음해 한주 동안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8월 20~24일까지 부산 백소도 등에서 6개국 청소년과 작가, 출판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디고 유스 북페어'를 열 계획이다. 인디고 아이들이 지난 1년여 동안 직접 6개 대륙을 돌며 작가들을 인터뷰하고 섭외하며 성사시킨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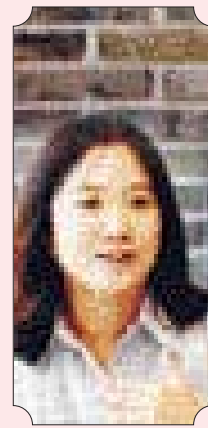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문 교양지 '인디고잉'(INDIGO+ing)도 펴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기자로 활동하며 만드는 '인디고잉'은 '나를 만나다', '행복한 책읽기' 등 다양한 색채로 구성돼 있다. 이제 인디고 서원은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것만이 아니다. 대구·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찾아드는 '꿈의 장소'가 됐다.

멀리 대구에서 혼자 참가한 박영하(소선여중 1년)양은 "오늘 '주제와 변주'에서 만난 '공부도둑'은 몇몇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게 읽었다"며 "대구에도 인디고 서원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후원회 한국전력공사

'인디고 서원' 대표 아람샘 허아람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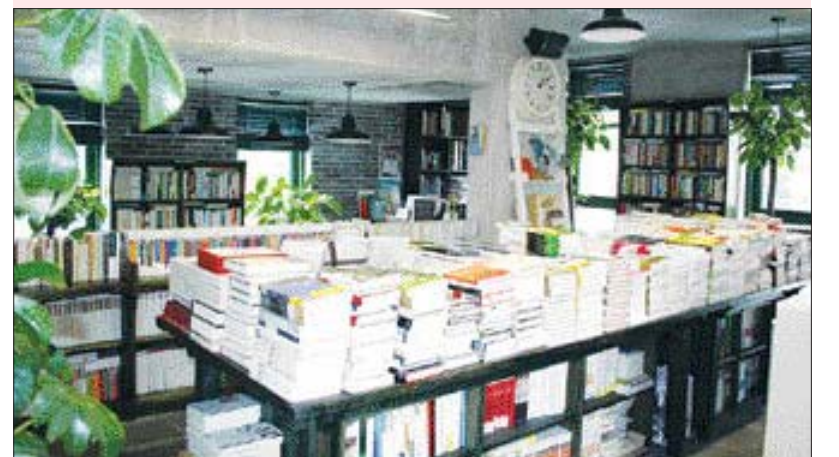
<허아람 씨>

'인디고 서원'은 지난해 8월 동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쁜 공간을 마련했다.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성호씨가 설계한 4층짜리 초록색 건물의 1층과 2층엔 어린이 책방 '인디고 아이들'과 '인디고 서원'이 자리잡고 있다. 3층은 잡지 '인디고 잉' 회의실, 4층엔 빨강머리 앤의 다락방이 있다. 지하에는 작은 소극장도 갖췄다.

'주제와 변주' 행사가 열린 6일 대표 허아람(36)씨는 하루 종일 분주했다. 허씨는 이곳에서 '아람샘'으로 통한다. 부산대 국문학과 재학 시절부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독서 수업'을 진행해온 아람샘은 지난 2004년 현 서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3평 규모의 '인디고 서원'을 열었다.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원하는 책을 구하기 힘들었고, 유럽 여행 당시 70여곳의 서점을 둘러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전문 서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인문학 운동이나 문화 전파자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빛을 지면서까지 지금 건물을 마련한 건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다 사회적 소통이 필요해 처음 서점 문을 열었던 것처럼, 서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책 읽기... 인문학 운동 앞장



'인디고 아이들'이 발간한 책자들

이곳에서 아이들의 삶이 확장되고, 꿈이 커지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간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옛 인디고 서원은 현재 '생태 식당-에코토피아'로 운영중이다. 생태·환경 분야 책을 읽으며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전액 내팔 타나후의 학교 건립 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여느 지역의 서점처럼 인디고 서원도 책 판매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아람샘이 진행하는 독서교실의 수익금이 운영비로 활용된다.

"아이들과 수업시간 토론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은 '인디고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정작 필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없어 아쉽죠. 일주일 내내 서원이 북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숙제죠."

'인디고 아이들'은 지난 2005년 출간한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를 비롯해, '주제와 변주 1, 2', '인디고 서원에서 행복한 책읽기' 등 도서출판 글리에서 모두 6권의 책을 펴냈다. 홈페이지(www.indigoground.net)에 가면 인디고 서원의 추천도서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물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클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건강이 재사합니다!

활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클러스

•활산화제 보강·비타민·E·엽록소·미네랄 등 활성산소 제거
 •기력, 눈의 피로, 기미, 주근깨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피로, 식욕부진, 관상동맥 질환, 스트레스 완화

제품문의 080-022-1010(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

비타민 C 1200mg
 1일 2정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